



박람회

제33회 나고야 건축박람회

린나이 도호가스 등 113개 업체 참가
내염 가스레인지·주택용 가스코젠시스템 등 눈길



이번 전시회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시스템도 다수 선보였다.

“밝은 주거, 풍요로운 생활”을 슬로건으로 한 제33회 나고야 건축박람회(건축종합전 NAGOYA 2003)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나고야시의 중소기업진흥회관 후키야게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건축박람회에는 린나이 도호가스 중부전력 등 113개 업체가 참가해 주택설비기기와 건축재료, 인테리어제품, 익스테리어(옥외장식)제품, 수입주택·건축재 등을 출품했다.

특히 도호가스와 린나이를 주축으로 한 가스주방기기와 동부전력 히다치를 주축으로 한 전기주방기기가 각각 소비자에 사용편의성과 에너지

절약성 등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린나이는 여러 가스주방기기를 전시했는데 주류는 빌트인 가스레인지였으며 빌트인 가스오븐레인지와 각종 급탕기도 선보였다. 또한 가스레인지를 이용한 요리 시연회가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했다.

일본에서는 가스레인지와 주방온수를 가스 연료로 연결하는 가스주방토탈시스템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고효율에 작은 불꽃까지 조절이 가능한 내염버너를 장착한 가스오븐레인지가 지난해 최고 인기상품이었다.

린나이측은 내염버너 가스레인지나 오븐레인



가스주방토탈시스템 등
각종 가스기기를 전시한 린나이 부스

지는 일반 레인지에 비해 20%이상 효율이 높아 요리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해 판매를 시작하지 몇 년만에 지난해는 최고 인기판매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온수기와 보일러 역할을 하는 일본의 급탕시스템의 경우 아직까지 대부분시장을 온수기가 점유하고 있고 최근 바닥난방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급탕난방기(보일러) 보급도 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콘덴싱 급탕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대부분 산업용 중심이었다. 8월 이후 콘덴싱에 대해 설치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가정용의 경우 판매가격이 일반보일러의 2배에 달해 보급은 거의 전무하다는 설명이었다.

도호가스는 천연가스로 발전과 난방, 급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용 가스코제너레이션을 홍보했다.

가스기와 함께 동부전력이 히다치 등 제조사와 함께 전기 주방기기를 전시했으며 샤프 등 태양열 난방기 업체도 다수 참가했다.

지난 1971년 1회를 시작으로 사회환경이 변천

하는 가운데에서도 매년 연속 개최돼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 이번 나고야 건축박람회는 건축관계자들에게는 건축기술의 향상과 지식 계몽에 공헌하고 또 많은 일반인에게는 '맑은 주거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하는 정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건축업계의 최신정보, 동향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의 테마는 '주거와 환경 遊·優·結(유·우·결)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환경으로의 배려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환경속에 업계와 소비자들에 건축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고효율 내염버너 장착 가스레인지



도호가스는 가스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인
ECO WILL 등을 선보였다.

